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서〉

구이(九二)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見龍在田].

「정전(程傳)」에 "밭은 땅 위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역에서 땅위라는 상을 취할 때 구(丘)라 하기도 하고 능(陵)이라 하기도 하며 교(郊)나 야(野)라 한 경우 등 그 종류가 많았다. 이제 '나타난 용'에 대하여 밭이라 말한 것은 그 혜택이 사람들에게 미침을 의미한다. 밭은 농사지어 수확하는 땅으로 반드시 비와 못으로 적셔준 뒤에야 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용이 땅 위에 나타나는 것은 밭의 경우가 가장 급하고 그 때문에 사물에 미치는 혜택도 가장 크므로 대인이 두루 덕을 베푸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구삼(九三)은 사람의 자리[人位]이므로 곧바로 '군자'라고 칭하였다. 구사(九四)는 사람의 윗자리로 대신(大臣)의 상(象)이다. 양의 성질은 나아가려 하나 구오(九五)에 가까우므로 '혹 뛰어'라고 하고 용이라 칭하지 않았다. 이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용이라 하지 않은 것이다. '혹 뛰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하지만 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다. 못은 낮은 곳으로 용이 사는 곳이다. 이는 낮은 곳에 거처하여 편안하게 분수를 지킬 수만 있다면 허물이 없음을 의미한다. 군신의 관계와 상하의 직분에 대하여 성인이 이처럼 근엄하니 그 취지가 은미하다.

「상전」에서 "혹 뛰어 못에 있다는 것은 나아가되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뛰더라도 자기의 직분을 지키면서 나아간다면 신하로서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도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허물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만일 뛰어 나가지 않는다면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나아간다[進]'는 것은 나아가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는 뜻이지 위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혹 뛰어 못에 있다'는 것은 못에서 뛴다는 것이지 하늘로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

구오(九五)는 하늘 자리[天位]이므로 "날아오른 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된다. 만물이 모두 우러러보고 그로부터 혜택을 입는다.

상구(上九)는 지나치게 하늘 높이 날아올라 다른 것들이 볼 수 없고 용 역시 그 혜택을 베풀 수 없으므로 '지나쳐 후회가 있다고 하였다.'

"단전(彖傳)" 위대하다 건원(乾元)이여!… 만국(萬國)이 모두 편안하다[大哉乾元, 止 萬國咸寧].

내가 왕신자(王中子)의 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구절은 착간이다. '건도변화(乾道變化)' 이하 '내이정(乃利貞)'까지 15글자는 '품물유형(品物流形)' 밑에 있어야 한다. 천과 성인의 일을 구분하여 같은 종류끼리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품물유형'은 크게 형통하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바르면 이롭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어서 '크게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의심한 것이다. 예전에 학자들도 이것을 주자에게 물은 적이 있는데, 주자는 "여기에서 끝과 처음은 원과 형이 있게 된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이것을 계기로 생각하니, 위에서 건원이 하늘을 통솔했다고 하였으므로 원은 네 가지 덕을 포함하여 천도의 끝과 처음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 때문에 천도가 원이며 통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크게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여 천과 성인을 뒤섞어 말하였다.

그래서 여섯 용을 타고 하늘을 어거한다고 한 뒤에 다시 건도를 들어 말함으로써 성인과 구분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풍물유형' 자체가 건도인데 다시 들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동정은 끝이 없고 음양은 시작이 없어 천도의 운행은 정(貞)이 된 다음에는 원(元)으로 돌아가 끝없이 순환하므로 한창 원형을 말하면서 이어서 종시(終始)를 말한 것이다. 게다가 천과 성인을 합하여 말한 것을 통해 천은 곧 성인이고 성인이 바로 천이어서 조금의 틈도 없다는 뜻을 알 수 있다. 반복해서 조용히 완미하면 그 맛이 깊고 그윽하다, 왕신자의 설을 진실로 이른바 '경계를 나눈 것'이어서 여운이 있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부족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원(元)·형(亨)·이(利)·정(精)이 되고 사람에게서는 인(仁)·의(義)·예(禮)·지(智)가 된다. '군자는 인을 체득하여'라고 한 이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군자가 이 네가지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므로 건의원 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한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한 것을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합치한다는 뜻이다. 이는 군자가 실천하는 덕이 바로 건의 네가지 덕이므로 천과 사람을 합일하는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원·형·이는 인·례·의라고 이름을 바꾸되 정을 '지'라 하지 않고 '정고(貞固)'라고 본 것은 오상(五常)의 신(信)을 아울러 말한 것이다. 천도가 정(貞)이 되었다가 원으로 복귀함은 본디 쉼이 없다. 사람의 경우에는 정도(正道)를 알고 굳게 지킨 뒤에야 스스로 힘써 쉬지 않게 되어 건도에 합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 지는 앎을 위주로 하지만 여기서는 실천을 위주로 하므로 '바르고 굳게'라고 하였다. 만일 지가 정도를 알기에 족하지만 믿음이 굳게 지킬 수 없다면, 인욕이 그것을 가려 천리가 멈추게 되니 어찌 건의 덕에 합치할 수 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2)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4편 이인(里仁) 제13장

공자가 말하였다. "예법과 겸양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고? 무엇이 어려울 것이며. 예법과 겸양으로서 나라가 다스려질 수 없다면 예는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원문]

子曰 能以禮讓이면 爲國乎에 何有며 不能以禮讓으로 爲國이면 如禮何리오.

[자왈 능이예양이면 위국호에 하유며 불능이예양으로 위국이면 여예하리오.]

[이해]

예는 인간 생활의 기본 규범의 틀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것의 본질을 확대해 나아가면 천하에 통치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

제14장

공자가 말하였다. "벼슬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 나설 능력이 모자람을 근심 할 것이며.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 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알려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기를 추구할 것이다."

[원문]

子曰 不患無位요 患小以立하며 不患莫己知요 求爲可知也니라.

[자왈 환소이입하며 불환막기지요 구이가지야니라.]

[이해]

충분한 기량이 닦아진다면 작록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법이니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마음속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바탕에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1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삼[參]아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철되어 있느니라."증자가 말하였다. "예 그렇습니까."공자가 밖으로 나가자 제자들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증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다."

[원문]

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라 子出이시거늘 門人이 問曰何爲也이니까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니라.

[자왈 삼호아 오도는 일이관지니라 증자왈 유라 자출이시거늘 문인이 문왈하위야이니까 증자왈 부자지도는 충서이이의니라.]

[이해]

삼[參]은 증자[曾子]의 이름이고 자[字]는 자여[子輿]로 공자의 제자이다. 충[忠]은 성실 서[恕]는 솔선수범의 뜻을 지닌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성심을 다하여 내가먼저 드러내 증명해 보이면서 실천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정의에 기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소인은 이익에 기준해서 이해하려 한다."

[원문]

子曰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니라.]

[이해]

군자는 정의를 위해 몸을 버리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 도리를 등진다는 뜻이다.

제17장

공자가 말하였다. "선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그와 같이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신의 내면을 거기에 비추어 반성해야 된다."

[원문]

子曰 見賢思齊焉하며 見不賢而內自省也니라.

[자왈 견현사제언하며 견불현이내자성야니라.]

[이해]

도처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남들의 좋고 나쁜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의 인격을 갈고 닦으라는 말이다.

제18장

공자가 말하였다. "부모를 섬기되 허물이 있다면 간곡히 간할 것이고. 자기의 뜻하는 간함을 따아 주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에 뜻을 어기지 말 것이며. 힘이 들어도 원망해서는 안된다."

[원문]

子曰 事父母하되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니라.

[자왈 사부모하되 기간이니 견지불종하고 우경불위하며 노이불원이니라.]

[이해]

가령 부모에게 허물이 있다면 후일 죄가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잘못을 힐난하며 함부로 대든다면 더욱 지식된 도리가 아니므로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리를 아뢰어 밝힐 것이나 부모가 끝내 굽히지 않는다면 그대로 공경하여 섬길 뿐 힘이 들어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19장

공자가 말하였다, "부모가 생존해 있거든 멀리 나다니지 말 것이며 반드시 간다는 곳에 있어야 된다."

[원문]

子曰 父母在이시거든 不遠遊하며 遊必有方이니라.

[자왈 부모재이시거든 불원유하며 유필우방이니라.]

[이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편하게 잘 섬기는 것이 지름길이고 행여 무슨 일이라도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 먼데 나다니지 말고 간다는 곳에 범위를 이탈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50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2〉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일제 강점기의 당시 조선을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막바지로 치달아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36년 7월 1일자로 항일독립운동가(일제의 표현으로는 '불령(조)선인不逞鮮人')인 권장군을 수배 추적하던 상하이(上海) 주재 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제2과에서 작성한 자료명부(要手配不逞鮮人名簿,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 第2課調)에서는, 권장군의 "키가 5척 3촌 정도이고, 얼굴이 넓고, 코가 크다. 눈이 크고, 피부는 검다"고 하였다.

권장군은 23세 때인 1917년 경성공업전습소를 졸업하였다. 1981년 9월 25일 사적 제279호로 지정된 공업전습소의 건물은 대한제국 때인 1906년-고종 광무 10년-에 설립된, 동숭동에 지었던 교사·식당 등의 여러 시설 가운데 하나다.

공업전습소 본관 건물은 탁지부(度支部) 건축소에서 설계를 맡아 1908년에 완공하였다.

구조는 목조(木造) 2층으로 외벽은 나무 후판(厚板) 비늘판 붙이기로 하였고, 지붕은 기와 이음이며 양익부(兩翼部) 파빌리온 부분 등을 채택하여 격식을 갖춘 르네상스 양식의 양옥 건축이다.

평면은 'H'자 모양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건물 중앙에 현관을 두고 지붕 위에는 탑을 세우고 탑 위에 반원구의 돔을 얹었다. 정면 벽을 정교하게 분할하고, 정면의 양쪽 돌출부 1, 2층 위에는 디오크레티안 창을 설치하였다.

공업전습소는 한국 근대 최초의 고등공업교육기관으로 1907년에 토목(土木)·목공(木工:건축)·응용화학(應用化學)·금공(金工)·염직(染織)·도기(陶器) 등의 분야가 있었으며, 본과 2년과 전공과 1년의 교육과정으로 편제되었다.

1912년 4월 이후에는 중앙시험소 부설 공업전습소로 개편되었다가 1916년 전습소가 경성공업전문학교와 경성공업학교로 분리되면서 본관 건물은 중앙시험소가 쓰게 되었다.

8·15광복 후 상공부 산하 국립공업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본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대한제국 말기의 건물 가운데 목조건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권장군이 졸업한 경성공업전습소는 대한제국 때 설립되어, 비록 그 후에 일제의 학제인 경성공전이나 경성고공 및 경성제대 이공학부나 해방 후 서울대 공과대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사료되나, 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되어 잠시 살펴본다면,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은 일본의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고, 조선인은 과학기술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식민지 과학기술 교육정책을 취하였다.

그래서 일제하에서도 한동안 대학은 설립되지 못했고, 일본 유학을 통한 이공계 대학의 졸업자 배출도 192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차단되었다.

1915년에 이르러서야 총독부는 조선인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共學) 형태를 띤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경성공전은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44년 경성공업전문학교로 바뀌면서 해방을 맞게 된다.

이 학교는 일제하 대표적인 과학기술 교육기관으로, 처음에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을 더 많이 뽑는다고 표방되었지만, 조선인의 다수를 입학시킨 뒤 중도에 탈락시킴으로써 사실상은 일본인을 더 많이 배출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염직과, 요업과, 응용화학과, 토목과, 건축과, 광산과 등에서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1938년에 기계공학과 및 전기공학과가 추가되었다. 한편 1924년 9월에 개교한 경성제국대학은 1938년에야 이공학부를 증설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미군정 시대인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설립안'이 공포되고,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치과전문학교·경성이학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 등 9개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그 해 9월 지금의 국립 서울대학교로 개교하였다.

권장군의 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전공지식은 후일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1920년대 초에 중국 상해 동제대학(同濟大學) 공과'에서 수학하였고, 1932년 10월 20일 중국 남경에서 의열단(義烈團)을 중심으로 한 조선정치군사간부혁명학교 개교식과 입학식의 직원과 교관 명부에서, 담임교관 명단에 군사조 축성학(築城學 권준權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때가 권장군 38세였다.

권장군은 경성공업전습소를 졸업한 후, 경상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항일투쟁단체인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였다.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당시 국내의 독립운동단체 중 가장 규모가 컸는데, 풍기의 광복단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이 통합되어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되었다.

대한광복회의 총사령 박상진(朴尙鎭, 1884-1921)은 경남 울산 출신 만석꾼 집안 후예로서, 한말 의병장으로 일제에 의해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왕산(旺山) 허위(許蔿, 1855-1908)의 제자였다.

박상진은 한일합방 후에 중국에 가서 신해혁명(1911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의 독립과 혁명을 위해서도 비밀결사, 암살, 폭동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귀국 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 전개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戒性篇 -계속

○ 子張(자장)이 欲行(욕행)에 辭於夫子(사어부자)할새 願賜一言(원사일언)이 爲 修身之美(위수신지미)하노이다. 子-曰(자-왈) 百行之本(백행지본)이 忍之爲上(인지위상)이니라. 子張이 曰(자장이 왈) 何爲忍之(하위인지) 닛고 子-曰 (자-왈) 天子-忍之(천자-인지)면 國無害(국무해)하고 諸侯-忍之(제후-인지)면 成其大(성기대)하고 官吏-忍之(관리-인지)면 進其位(진기위)하고 兄弟-忍之(형제-인지)면 家富貴(가부귀)하고 夫妻-忍之(부처-인지)면 終其世(종기세)하고 朋友-忍之 (붕우-인지)면 名不廢(명불폐)하고 自身-忍之(자신-인지)면 無禍害(무화해)니라.

해설: 자장이 떠나고자 공자님께 하직을 고하면서 말하기를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되느니라."자장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참는 것이 되나이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깎이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자장(子張)의 성은 전손(顓孫), 이름은 사(師), 자장은 그의 자(字)이며 공자의 제자로 말솜씨가 뛰어났다고 한다.

○ 子張이 曰(자장이 왈) 不忍則如何(불인즉여하)닛고, 子-曰(자-왈) 天子-不忍(천자-불인)이면 國空虛(국공허)하고 諸侯-不忍(제후-불인)이면 喪其軀(상기구)하고 官吏-不忍(관리-불인)이면 刑法誅(형법주)하고 兄弟-不忍(형제불인)이면 各分居(각분거)하고 夫妻-不忍(부처-불인)이면 令子孤(영자고)하고 朋友-不忍(붕우-불인)이면 情意疎(정의소)하고 自身이 不忍(자신이 불인)이면 患不除(환부제)니라. 子張曰 善哉善哉(자장왈 선재선재)라 難忍難忍(난인난인)이여 非人不忍(불인불인)이요 不忍非人(불인비인)이로다.

해설: 자장이 물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空虛)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리게 되고, 벼슬아치(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법(刑法)에 의하여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하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갈려 멀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느니라." 자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좋고도 좋으신 말씀이로다. 아 아 참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어렵도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같으면 사람이 아니로다."고 하셨다.

참고: 辭..하직할 사, 賜..줄 사, 害..해할 해, 進..나아갈 진, 候..제후 후, 吏..아전이, 位..벼슬 위, 妻..아내 처, 朋..벗 붕, 廢..폐할 폐, 忍..참을 인, 張..베풀 장, 國..나라 국,空..빌 공, 虛..빌 허, 諸..모든 제, 喪..복입을 상, 軀..몸구, 誅..베힐 주, 孤..외로울 고, 疎..성길 소, 멀 소, 除..제할 제, 非..아닐 비.

○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 屈己者(굴기자)는 能處重(능처중)하고 好勝者(호승자)는 必遇敵(필우적)이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요한 지위에 처할 수 있으며,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나느니라."고 하셨다.

○ 惡人(악인)이 罵善人(매선인)커든 善人(선인)은 摠不對(총부대)하라 不對(부대)는 心淸閑(심청한)이오 罵者(매자)는 口熱沸(구열비)니라. 正如人唾天(정여인타천)하여 還從己身墜(환종기신추)니라.

해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전연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나, 꾸짖는 자는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게 끓느니라. 마치 사람이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는 것 같아서 그것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느니라."

○ 我若被人罵(아약피인매)라도 佯聾不分說(양롱불분설)하라 譬如火燒空(비여화소공)하여 不救自然滅(불구자연멸)이라 我心(아심)은 等虛空(등허공)이어늘 摠爾讒脣舌(총이번순설)이니라.

해설: "내가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듣더라도 거짓 귀먹은체하고 시비를 가려서 말하지 말라. 비유 하건데 불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아서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거늘 너의 입술과 혀만은 모두 쉬지 않고 엎쳤다 뒤쳤다 하느니라."

○ 凡事(범사)에 留人情(유인정)이면 後來(후래)에 好相見(호상견)이니라

해설: 모든 일에 인자스럽고 따뜻한 정을 남겨두면 뒷날 만났을 때는 좋은 낯으로 서로 보게 되느니라.

참고: 屈..굽힐 굴, 遇..만날 우, 敵..적대 적, 勝..이길 승, 罵..꾸짖을 매, 沸..끓을 비, 唾..침 타, 墜..떨어질 추, 佯..거짓 양, 譬..비유할 비, 燒..탈 소, 救..구할 구, 然..그리 연, 滅..멸할 멸, 等..무리 등, 같을 등, 讒..뒤집힐 번, 脣..입술 순, 舌..혀 설, 留..머무를 유, 情..뜻 정

〈다음호에 계속〉